

수능특강 언어 총정리

이번에는 개념편, 문제편, 실전학습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잘 학습해주세요!

여러분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어요.. 즉 음운 취
급을 못 받아요 제발요..... 0순위 암기사항임

개념편 정리(개념이라고 패스하시면 큰 일 남, 대부분 심화임)

1(매체). 전통적 매체인 신문은 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함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임

2. 반모음도 분절 음운(음운, 음소라고도 함)에 해당함

3. 반모음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 방해는 받지 않음

4. 비분절 음운은 음운, 음소에 얽혀 실현되고, 다른 말로는 운소라고도 함(고저, 강약, 장단과 같은 게 비분절음운)

5. 한국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이고 원칙상으로 단어의 첫 머리에만 장단 표현 가능

6. 이중 모음의 종류(제발 좀 외워주세요...)

1) j 계열(ㅟ, ㅞ, ㅟ, ㅞ, ㅠ, ㅠ, -)

2) w 계열(ㅜ, ㅜ, ㅠ, ㅠ)

7. ㅜ와 ㅠ는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

8.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 7개 자음(ㄱㄴㄷㄹㅁㅂㅇ) 빼면 결과적으로 ㄱㄷㅂ 중에 하나로 변함

9. 제발 이제는 구개음화 조건 정확히 외워주세요...

구개음화는 ㄷ 이 모음 i 나 반모음 j 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으로 변하는 현상임

ㄷ뒤에 형식 형태도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ㅈ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구개음화임

정확히 알기로는 축약 + 구개음화로 알고 있습니다.

수특 예시) 닫히다 -> 다치다

10. 경음화(된소리되기)의 조건 중에 어려운 거 정리

1)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 의 경음화
발달, 질서, 물질

2)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할 것을 -> 할꺼슬

11.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며 음운으로 구성됨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 가능

12. ㄹ 의 비음화(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

ㄹ 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 이 ㄴ 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됨

종로 -> 종노

흙런 -> 흙넌

13. 연음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일어남 음운 변동 아님!

14. 필수적인 건 아닌데 ㄹ탈락이 있긴 함 합성어나 파생어 만 들어질 때 일어나기도 함(ㄹ이 ㄴㄷㅌㅍㅊ 앞에서) 수특예시) 하느님, 화살, 바느질

15. 첨가랑 탈락 중에 언제 일어나는지 조건 외우면 좋을 것 정리

1) ㄴ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일어남

2)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절대 아님!!!!

3) ㄹ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ㄹ이 ㄴㅌ 등의 앞에서 탈락 예시는 알 + 니 -> 아니, 알 + 시 + 고 -> 아시고

4) ㅎ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5) ㅡ탈락: 어간의 끝소리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6)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함 예시는 자 + 아서 -> 자서, 서 + 어 -> 서

16. 구개음화는 조음 방법이랑 조음 위치가 모두 변하는 현상임

17. 음운 변동 어려운 사례들

1) 앞서금니 -> 아버금니 로 발음되고 음운 변동은 음끝 한번만 일어난 것임

2) 구급약 -> 구금약, 막일 -> 망닐
이 두 경우는 ㄴ 첨가가 먼저 일어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임

3) 젓병 -> 전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난 후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것임

18.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

원래 아무튼 서술격이어도 조사라서 명사 뒤에 붙는 게 맞는데 (사람이다와 같이) 특이하게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 붙을 수도 있음

예시¹⁾ 일하는 솜씨가 제법이다.(부사 뒤에 붙음)

예시²⁾ 오늘 아침 잠을 깬 것은 9시가 넘어서였다.(연결 어미 뒤에 붙음)

19. 미지칭과 부정칭 구분법

1) 한글로 하자면 미지칭(未知稱)은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 부정칭(不定稱)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외우면 편하다.

즉 해당 문장에 ‘아무’를 넣어서 말이 되거나 굳이 밝히지 않으면 부정칭이고 그 외에는 미지칭이다.

2) 영어로 하자면 해당 문장을 대충 영어로 번역했을 때 who why what how when이면 미지칭
any, some이면 부정칭입니다.

20. 유의해야 할 지시 동사와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이렇다), 그러하다(그렇다), 저러하다(저렇다): 지시 형용사

이리하다(이리하다), 그리하다(그러다), 저리하다(저러다): 지시 동사

21. 지금쯤이면 사실 다 외웠어야 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입니다. 그냥 수능특강 본문 복사붙여넣기합니다. 제발 외우세요!!!

1)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음.

현재 시제 평서형: 잔다/먹는다(동사), *예쁘다/*좁는다(형용사)

2)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으)ㄴ’이 붙음.

현재 시제 관형사형: 자는/먹는(동사), 예쁜/좁은(형용사)

3)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음.

명령형/청유형: 자라/먹자(동사), *예빠라/*좁자(형용사)

4)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 등이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음.

-(으)려고/-고자: 먹으려고/먹고자(동사), *좁으려고/*좁고자(형용사)

cf) 주의해야 할 단어 ‘있다’

존재나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지만 한 장소에 머뭇머뭇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동사임

형용사 있다, 없다는 특이하게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 가능

22. 부사는 체언을 꾸미기도 한다. (바로 너)

23. 관형사는 격 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음, 부사도 격 조사랑은 결합하지 않지만 관형사와 달리 보조사는 결합 가능함(차가 빨리도/는 간다)

24. 보조사는 생략이 어려움(보조사 자체가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지라 빠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25. 명사 + 명사, 부사 + 부사는 통사적 합성어, 부사 + 명사는 비통사적 합성어임

26. 보슬비는 비통사적 합성어임: 비자립적 어근 + 명사의 구성, 즉 보슬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임

27. 손은 의미 확대의 예시임(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에서 노동력의 의미가 추가됨)

28. 사랑하다는 과거에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사랑하다는 의미만 남은 의미 축소의 예시임

29. 외래어 표기법

- ① 외래어는 현용 24 자모만 사용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함.
-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함.
.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썬(×)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뒤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us: 버스(.), 뻬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 camera: 카메라(.), कै머러(×)

30. 로마자 표기법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음.

자음 동화, ‘ㄴ’ 첨가,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함.

백마[백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해돋이[해도지]: haedoji, 농다[노타]: nota

경음화(뒤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죽변[죽뻬]: Jukbyeon, 팔당[팔땅]: Paldang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올 때는 ㅎ을 밝혀 적음

예시) 목호[무코]: Mukho

31. 구와 절 이제는 외우자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말

절은 주어와 서술어 갖춘 거

구보다 절이 보통 더 큰 단위

32. 보어도 주성분임, 부속 성분에 관형어랑 부사어 있음

부사어 제발 필수적 부사어 떠올리면서 주성분! 이리지 마셈

33. 본 용언 + 보조 용언은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함

34.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모든 사람이 우리 형을 좋아한다.

☞ 주어는 '모든 사람이'이고 관형어 '모든'은 주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목적어는 '우리 형을'이고, 관형어 '우리'는 목적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35. 보어 찾을 때 기계적으로 되다/아니다 앞에 이/가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침. 보격 조사 이/가도 생략이 가능함, 즉 되다/아니다 있으면 이/가 없어도 넣어서 말이 되면 보어 처리 해야함

언니가 대학생 되었어 / 언니가 대학생은 아니야

36. 체언은 관형어가 될 수 있음(시골 풍경에서 시골은 관형어)

37. 부사는 관형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음, 꼭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님!!!

38.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는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임

39. 이 집은 마당이 넓다.

☞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 집은’이고 서술어는 ‘마당이 넓다’임. 서술절 ‘마당이 넓다’에서 주어는 ‘마당이’이고 서술어는 ‘넓다’임.

40.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함.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임.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이고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
‘께’는 부사격 조사 ‘에게’의 높임말

41. 상대 높임 제발 외우세요.... 수완 정리에 있습니다...

42.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함.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함.
예시)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43. ‘-겠-’은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음

예) 지금쯤 형은 부산에 도착했겠지.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44.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ㄴ 것(이)-’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예)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45.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차이는 ‘주체의 참여 여부’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직접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간접 사동)

46. 피동 표현은 접미사 ‘- 되다’, ‘- 받다’, ‘- 당하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또한 사동 표현은 접미사 ‘- 시키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47.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지 말다’ 형태의 긴 부정 표현이 쓰임. 명령과 청유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한정되는 반면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함(함께하기를 요청함)

48. 간접 인용은 해당 인용문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서술하는 게 핵심임, 즉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49. 기운을 회복한 말이 내달기 시작하였다.에서 ‘내달기’는 목적어임

교훈: 특정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격조사를 넣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50.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 관련을 의미하고 응집성은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함

51. 중세 국어 단모음은 7개임(ㅏ, ㅑ, ㅣ, ㅓ, ㅕ, ㅗ, ㅛ)

52.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Ø(영형태)’로 실현됨.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Ø’로 나타남.

교훈: 중세 국어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에서 반모음이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알아야함 사진 참고

53.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ㄹ, ㄹ/를’ 대신 ‘ㄹ’이 사용되기도 함. (머릴 (머리 + ㄹ))

54. 중세 국어에서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이인칭 주어 의문문에 ‘-ㄴ다’, ‘-ㄹ다’ 등을 사용하였음.

55.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에서 높임의 유정 체언이랑 무정 체언에는 ‘ㅅ’이 쓰였음

56.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달라진 점들 정리(정말 굳이... 외워야하나 싶음..)

1)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를 주로 사용하였음.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함.

2) 거듭적기(흔철) 나타남

중세국어 어중모음 정리

i) ㅏ, ㅑ, ㅓ, ㅕ, ㅗ, ㅛ

(선행) 반모음 + 단모음

ii) ㅓ, ㅕ, ㅗ, ㅛ, ㅜ

단모음 + 반모음(후행)

iii) ㅖ, ㅙ, ㅚ, ㅜ

⇒ ㅏ, ㅑ, ㅓ, ㅕ + 반모음(후행)

- 3) 반치음, 어두자음군 삭제
- 4) 거센소리되거나 된소리되기 나타나기 시작
- 5) 구개음화 나타나기 시작
- 6) 아래아가 삭제됨
- 7) 단모음이 8개 + 더 뒤로 가면 10개(지금의 단모음 체계)
- 8) 주격조사 가 등장
- 9)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등장 앓 앓

57(매체). 통속성의 정의: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성질

58. 구경꾼에서 '-꾼'은 접미사임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의미함

59. '께서', '에서'도 주격 조사로 사용할 수 있음

60. '지만'은 '대등적 연결 어미'임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다(대조의 의미)

61. 중세국어에서! 내 이를 위하여는 현대로 해석하면 내가 이를 위해서인데 여기서 '내'는 '나' 플러스 주격 조사 'ㅣ'임

문제편 정리

1. 문제 푸세요 이중 모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꼭 설명들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보기>의 ㉠, ㉡과 관련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 단모음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면, 같은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 모음들을 서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 반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키면, 이중 모음과 단모음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이같이 구별하기 어려운 발음은 표기를 헛갈리게 만든다.

	㉠	㉡
①	‘애기’인지 ‘예기’인지 헛갈린다.	이름이 ‘지환’인지 ‘지한’인지 헛갈린다.
②	‘휴게실’인지 ‘휴계실’인지 헛갈린다.	‘옛다’인지 ‘엣다’인지 헛갈린다.
③	‘세뇌’인지 ‘새뇌’인지 헛갈린다.	‘수완이 좋다’인지 ‘수환이 좋다’인지 헛갈린다.
④	이름이 ‘지연’인지 ‘지연’인지 헛갈린다.	‘한갑잔치’인지 ‘한갑잔치’인지 헛갈린다.
⑤	‘의례’인지 ‘의래’인지 헛갈린다.	‘웬지’인지 ‘웬지’인지 헛갈린다.

정답 1번

[애]는 반모음 ‘j’와 단모음 [æ]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예]는 반모음 ‘j’와 단모음 [e]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단모음 [æ]와 [e]가 잘 구분되지 않으면 [애]와 [예]도 구분하기 어렵게 되고, 표기할 때 ‘æ’, ‘e’가 헛갈릴 수 있다. [나]는 반모음 ‘w’와 단모음 [a]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나]를 발음할 때 반모음 ‘w’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키면 [a]로 소리 나므로, 반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키면 [나]와 [a]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고, 표기할 때 ‘na’, ‘a’가 헛갈릴 수 있다.

{오답}

② [케]와 [케]는 반모음 ‘j’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표기에서 ‘ke’와 ‘ke’가 헛갈리는 것은 단모음과 이중 모음이 발음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케]와 [케]는 단모음 [ke]와 [ke]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표기에서 ‘ke’와 ‘ke’가 헛갈리는 것은 두 단모음이 발음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세]와 [새]는 모두 단모음으로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이 없다. ‘수완’과 ‘수환’은 [ㅎ]을 제대로 발음하는지와 관련된 헛갈리는 표기이므로 이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이 없다.

④ [지]와 [지]는 반모음 ‘j’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나]와 [na]는 반모음 ‘w’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⑤ [의]와 [의]는 단모음 [e]와 [æ]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웨]와 [웨]는 단모음 [e]와 [æ]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2. 산불은 [산뿔]로 발음되는데 산 + 불로 명사끼리 결합한 합성어라 사잇소리 현상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임

3. ㄱ과 ㅇ의 조음 위치는 같습니다. 둘다 연구개음이에요

4. 한자어라는 조건은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보아 -> 봐 로 되는 것은 단모음 ㅏ가 반모음 W로 바뀌어서 한 음절이 줄어들어 발음된 사례임

6. 와는 오 + 아 로 항상 와로 실현된다.

7. 문제 푸세요(이런 유형의 문항 익숙해지셔야합니다. 보기의 정보를 선지에 적용해서 푸는 문항) 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ㄸ, ㅌ)’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4. ‘ㅎ(ㄸ,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 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 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제8항을 보니, 받침소리로 7개의 자음만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종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군.
- ② 제12항의 ‘1’을 보니, ‘ㅎ’과 다른 자음이 축약될 때 형식 형태소라는 정보가 필요하군.
- ③ 제12항의 ‘4’를 보니, 종성에서 다른 자음 뒤에 있는 ‘ㅎ’은 연음 환경에서 탈락하는군.
- ④ 제13항을 보니, ‘제 음가’는 연음되어 초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음가를 의미하겠군.
- ⑤ 제12항과 제14항을 보니, 겹받침 중 뒤엿것이 ‘ㅎ’과 ‘ㅅ’이면 연음으로써 제 음가를 확인할 수 없겠군.

{정답} 2번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하여 축약이 일어날 때는, ‘ㅎ’과 결합하는 자음이 ‘ㄱ, ㄷ, ㅂ, ㅈ’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조사, 어미, 접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라는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제12항의 ‘1’에서도 형태소에 대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① 제8항에서 받침소리는 종성을 의미한다. 국어의 종성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초성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자음의 원래 소리가 날 수 있다.

③ ‘ㅎ’이 종성에 다른 자음과 함께 있더라도 항상 다른 자음뒤에 있어 음절의 끝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탈락한다.

④ 조사, 어미, 접미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제13항은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연음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관련된 조항이다. 연음이 되면 종성 자리의 자음이 초성 자리에서 발음되고, 종성에 있는 제약이 초성에는 없으므로 자음의 원래 소리가 난다. 원래 소리를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 음가’로 표현하고 있다.

⑤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을 가진 단어는 연음이 일어나면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한다. 다만, ‘ㅎ’은 탈락하고, ‘ㅅ’은 종성의 자음군에서 ‘몫, 값’과 같이 ‘ㄱ, ㅂ’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몫이[목씨], 값을[갑쓸]과 같이 ‘ㅍ’으로 발음되므로 제 음가를 확인할 수 없다.

8. 문제 푸세요(이런 유형의 문항 익숙해지셔야합니다. 보기의 정보를 선지에 적용해서 푸는 문항) 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보기>는 한글 맞춤법 조항의 일부이다.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 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제 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제 12항 한자음 ‘라, 래, 로, 뤼,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① ‘내일(來日)’과 ‘미래(未來)’를 보니 ‘來’의 본음은 ‘래’이겠군.
- ② <보기>에서 ‘단어 첫머리’는 음절의 초성과 같은 개념이겠군.
- ③ 제11항에 따르면, ‘성공을’이 아니라 ‘성공률’이 바른 표기이겠군.
- ④ <보기>는 모두 외래어의 표기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는 공통점이 있군.
- ⑤ ‘男女’의 한글 표기가 ‘남여’인지 ‘남녀’인지 알아보려면 제10항을 살펴봐야겠군.

{정답} 2번

각 조항에 제시된 한자음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초성의 자음을 ‘ㅇ’이나 ‘ㄴ’으로 표기한다.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초성의 ‘ㄴ’이나 ‘ㄹ’을 본음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단어의 첫머리는 단순히 음절의 초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과 중성을 가리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 ① 각 조항의 [붙임 1]에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 ③ 제11항의 조항 중 [붙임 1] 다음의 ‘다만’의 내용을 보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고 이외에는 ‘렬, 룰’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④ 제10항~제12항 모두 한자음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외래어의 표기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 ⑤ 제10항에서 한자음 ‘녀’를 다루고 있다. ‘男女’는 한 단어이고, ‘女’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으므로, 본음대로 ‘녀’로 적는다.

9. 창가는 합성어임(창 + 가) 가가 접사 아닙니다.

10. 누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다.

라는 문장에서 ‘저’는 삼인칭 대명사이고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임

11. ‘저 사람이’, ‘저하고 그 사람은’에서 ‘저’는 품사가 각각 관형사랑 일인칭 대명사로 다름 따라서 품사의 통용이 아니고 동음이의어임 품사의 통용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여야함 가령 굴 여섯 개를 먹었다랑 여섯에서 하나를 빼면에서 여섯은 품사는 관형사랑 수사로 다르지만 의미는 유사하기에 품사의 통용임

12. 잡아당기지 못했다라는 문장에서 ‘잡아당기다’를 분석하면 잡- + 당기- 인데 둘다 본용언임 당기다는 보조용언이 아닙니다! 잡아서 당기다라는 말이 성립하니까요 거기서는 ‘못했다’가 보조 용언입니다.

13.

햇과일에서 햇은 접사임

사느라에서 ‘느’는 어미에 해당함 + 모양새에서 ‘새’는 접미사
이고 새집에서 새는 어근임

한가위에서 ‘한’은 접사임 따라서 한가위는 단일어 아니고 파
생어임(‘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
라는 말이 합쳐진 것임)

14.

‘잘생긴’에서 ‘잘’은 부사에 해당함

‘보슬비’는 ‘보슬’+‘비’인데 여기서 ‘보슬’은 자립성이 없는 어
근 ‘보슬’임 즉 보슬비는 파생어 아니고 합성어임(비통사적 합
성어)

어린이는 어린 + ‘이’인데 여기서 ‘이’는 명사에 해당해서 어린
이는 통사적 합성어임

‘어느새’는 ‘어느’ + ‘새’인데 이걸 합성어임(어느는 명사이고
새는 관형사임)

한번은 한 + 번인데 한이 명사고 번이 관형사임

헌신짝은 헌+신짝인데 헌도 어근이고 신짝도 어근이라 합성어
임

15.

‘눈물’은 ‘눈알 바깥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라는 뜻일 때나 ‘눈이 녹아서 된 물’이라는 뜻일 때 모두 선
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종속
합성어임

‘안팎’은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이라는 뜻일 때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고,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라는 뜻일 때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16.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상식적인’은 관형어인데 명사 ‘상식적’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해서 ‘인’으로 붙은거임 관형사는 격조사랑 결합할 수 없음

17. 배달음식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에서 부사 ‘아주’는 부사 ‘안’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음(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예시)

18. ‘밝혔다’는 주어 외에도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맞으나, ‘실시한’은 주어와 목적어만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정부에서’는 ‘실시한’의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로,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서’가 쓰인 것이다.

19. ‘마시고’와 ‘먹었다’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나, ‘먹었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음식 전반이 올 수 있는 반면에 ‘마시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액체만이 올 수 있다.

20. 4번은 틀린 선지고 5번은 맞는 선지인데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문장 종결 표현이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의 문장 형식을 가리키는 문법 범주로, 문장의 유형이라고도 한다. 국어 문장의 유형은 종결 어미 혹은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종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종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니: ㉠우리 같이 피자 먹자.

동생: ㉡앗, 언니도 배고팠던 줄을 내가 몰랐구나. ㉢(내리는 억양으로) 나는 아까 라면 먹었어.

언니: ㉣(올리는 억양으로) 너 라면 먹었어? ㉤너는 뭐 먹을 때 나 좀 불러라.

동생: ㉥앞으로는 꼭 그렇게.

④ ㉠과 ㉢은, 사용된 종결 어미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감탄문에 해당하겠군.

⑤ ㉡과 ㉤은, 사용된 종결 어미의 형태는 같으나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종결 표현이 구별되겠군.

㉠에 사용된 종결 어미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면서 감탄의 뜻을 수반하고 있으나, ㉢에 사용된 종결 어미 '-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감탄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은 그렇지 않다.

㉡과 ㉤은 모두 '-어'라는 종결 어미를 가진 문장이나, 문장 끝의 억양에 따른 종결 표현의 종류는 각각 평서문과 의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1. 그 선수는 키가 크기로 유명하다. 라는 문장에서 명사절 '키가 크기'는 부사격조사 '로'와 결합해 부사어로 쓰임

22. 녹여졌다는 이중 피동이 아님

겉으로 '이'랑 '어지다' 보인다고 어! 이중이다 이러지 마셈 제발.... 녹이다는 사동사라 어지다 붙여도 사동 + 피동이지 이중 피동이 절대 아님

교훈: 겉으로 접사랑 '-어지다' 보고 이중 피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셈 원동사가 사동인지 피동인지부터 판단한 후에 진행하셈 제발

23. 제발 제발 이제는 좀 외워주세요 이거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에는 ‘-는’과 ‘-(으)ㄴ’이 있는데, ‘-는’은 동사에 쓰이고 ‘-(으)ㄴ’은 형용사나 ‘이다’에 쓰인다.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에는 ‘-(으)ㄴ’과 ‘-던’의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쓰이고 형용사에는 ‘-던’만이 쓰인다. 다만 동작상을 보면, ㉠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내가 먹은 냉면은 유명한 식당에서 사 온 것이다.’와 같이 ‘-(으)ㄴ’이 붙고, ㉡ **미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건 내가 먹던 냉면이다.’와 같이 ‘-던’이 붙는다. 형용사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던’이 붙어도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고 미완료된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 ① ㉠: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 바람이 불어 예쁘던 꽃들이 죄다 떨어졌다.
- ② ㉠: 눈이 쌓인 도로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
 ㉡: 집에서 책을 읽던 중에 형의 전화가 걸려 왔다.
- ③ ㉠: 나는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다.
 ㉡: 선생님께서는 내 상담 요청에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
- ④ ㉠: 그는 손등에 수액 바늘을 꽂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 깨끗하던 계곡물에 맨발을 담그고 재미나게 놀았었다.
- ⑤ ㉠: 누나는 한참 만에 무거운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우리를 앞질러 달리던 말들도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정답

㉠의 ‘쌓인’은 동사 어간 ‘쌓이-’에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의 ‘읽던’은 동사 어간 ‘읽-’에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 미완료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동사/과거/완료
 ㉡: 바람이 불어 예쁘던 꽃들이 죄다 떨어졌다.
 형용사/과거
- ③ ㉠: 나는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다.
 형용사/현재
 ㉡: 선생님께서는 내 상담 요청에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
 동사/과거/미완료
- ④ ㉠: 그는 손등에 수액 바늘을 꽂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동사/과거/완료
 ㉡: 깨끗하던 계곡물에 맨발을 담그고 재미나게 놀았었다.
 형용사/과거
- ⑤ ㉠: 누나는 한참 만에 무거운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형용사/현재
 ㉡: 우리를 앞질러 달리던 말들도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동사/과거/미완료

24. 관형사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 관형절은 안긴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 속의 체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 그러나 동격 관형절은 안긴문장과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없다.

- ① 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
- ②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
- ③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
- ④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
- ⑤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정답: ⑤, 혼자 동격에 해당함

25. 구름이 걷힌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 예문은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의 예시가 아닌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의 예시임

26. 이거보다 나오면 어렵게 나올텐데 이런 감이라는 것만 익혀두셈 중요한건 암튼 간접 인용하면 원문장이 내 기준으로 바뀌는 거임 꼭 이해하고 넘어가기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인용 표현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의 인용절은 마침표 등을 모두 표시하고 따옴표로 묶은 뒤 ‘(이)라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절은 말한 그대로를 따오지 않고 화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해서 따온 것이므로, 본래 문장에서는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종결 어미가 선택되었지만 인용절 속에서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만 어미 선택이 달라진다. 평서문은 ‘-다고’로, 의문문은 동사의 경우 ‘-(느)냐고’, 형용사의 경우 ‘-(으)냐고’로, 명령문은 ‘-(으)라 고’, 청유문은 ‘-자고’로 통합되어 표현된다. 감탄문은 간접 인용을 할 때 평서문으로 인용된다. 또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현재 관점 및 시점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나 시간 표현이 달라진다.

<보기 2>

직접 인용	→	간접 인용
연경이는 “꽃이 참 예쁘구나!”라고 감탄했다.	→	㉠
수지가 나에게 “언제 집에 가니?”라고 물었다.	→	㉡
민지가 현수에게 “나도 힘이 세.”라고 말했다.	→	㉢
위원회는 승아에게 “네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라고 알렸다.	→	㉣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학생들에게 “내일은 일찍 와라.”라고 말씀하셨다.	→	㉤

- ① ㉠: 연경이는 꽃이 참 예쁘다고 감탄했다.
- ② ㉡: 수지가 나에게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다.
- ③ ㉢: 민지가 현수에게 자기도 힘이 세다고 말했다.
- ④ ㉣: 위원회는 승아에게 네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알렸다.
- ⑤ ㉤: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학생들에게 오늘은 일찍 오라고 말씀하셨다.

정답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승아에게 “네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라고 알렸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꾼 문장으로는 ‘위원회는 승아에게 그녀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알렸다.’ 따위가 적절하다.

오답

- ① “꽃이 참 예쁘구나!”는 감탄문이며 감탄문은 간접 인용을 할 때 평서문으로 나타나므로, ‘-다고’를 사용하여 ‘연경이는 꽃이 참 예쁘다고 감탄했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 ② “언제 집에 가니?”는 의문문이며 서술어에 동사가 쓰였으므로, ‘-냐고’를 사용하여 ‘수지가 나에게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 ③ “나도 힘이 세.”는 평서문이므로 ‘-다고’를 사용하며, 화자의 현재 관점을 고려할 때 대명사 ‘나’는 ‘자기’로 바꾸어야 하므로 ‘민지가 현수에게 자기도 힘이 세다고 말했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 ⑤ “내일은 일찍 와라.”는 명령문이므로 ‘-라고’를 사용하며, 화자의 현재 관점을 고려할 때 ‘내일’은 ‘오늘’로 바꾸어야 하므로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학생들에게 오늘은 일찍 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

정답

‘노피’와 ‘너빅’은 각각 현대 국어의 ‘높이’와 ‘너비’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의 ‘높이’와 ‘너비’에는 공통적으로 접사 ‘-이’가 쓰였지만, ‘노피’와 ‘너빅’에는 각각 접사 ‘-기’와 ‘-기’가 결합했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일어났던 모음 조화 때문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 접사 모두 명사를 만든다.

오답

① 중세 국어 ‘노피’는 ‘높-’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② ‘노피’와 ‘높이’는 모두 용언 어간 ‘높-’이 어근인 파생어이다.

④ ‘걸음을 걸음이’에서 앞의 ‘걸음’의 ‘-음’은 명사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뒤의 ‘걸음’은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걸음’은 여전히 서술어의 기능을 하여, 앞의 ‘걸음을’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의 ‘거름 거루미’에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음’이고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는 어미는 ‘-음’임을 알 수 있다.

29. 설명 의문문은 -오/우- 계열 어미 판정 의문문은 -아/어- 계열 어미가 와야함

+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붙어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음(현대국어는 안됨)

30.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에 변화가 일어나는 음운 변동임

31.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주격 조사 ‘이/가’가 붙어 표시된다. 그런데 ㉠ 체언이나 부사(어)의 뒤, 연결 어미 ‘-지’의 뒤, ‘-고 싶다’ 구성의 앞 등에 결합하는 ‘이/가’는 주격 조사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가’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높임의 대상이 주체로 쓰였을 때는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인다. 그런데 ‘께서’의 사용은 필수적이지 않아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결합해 있다면, ‘께서’를 쓰지 않고 ‘이/가’를 써도 존대하는 의미를 잃지 않는다.

한편, ‘에서’도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에서’는 기관, 단체 등을 뜻하는 명사 뒤에서 그것이 주어임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주격 조사 ‘이/가’로 대치

하여 쓸 수 있다. 그런데 ‘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대기업이다.’와 같이 행위성이 없는 서술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주어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는 ‘우리 지금 도서관에 가.’에서처럼 생략되기도 한다. 주어가 구로 나타나기보다는 단어로 나타날 때, 문어에서보다는 구어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격 조사는 보조사로 대치되기도 한다. 예컨대 ‘선생님은 지금 수업 중이다.’에서는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 ‘은’이 쓰였다. 그러나 주격 조사를 결합하여 ‘선생님이’로 써도 문장은 성립하기 때문에 ‘선생님은’은 주어임이 분명하다. 드물기는 하지만 주격 조사는 보조사와 함께 쓰이기도 하며, 주격 조사가 보조사로 대치될 경우에는 보조사가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1. 밑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이해한 내용
①	너희들 먼저 먹어야겠다.	‘너희들’은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이다.
②	준호는 지금 운동장에 있다.	‘준호는’은 ‘준호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로 볼 수 있다.
③	학교에서 강당이 제일 크다.	‘학교에서’의 ‘에서’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④	승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승주만이’는 보조사 ‘만’과 주격 조사 ‘이’가 함께 쓰여 주어가 되었다.
⑤	이모가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에 ‘-시-’가 결합해 있으므로 ‘이모’에 대한 존대의 의미를 유지한다.

2. 밑줄 친 말이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어느 곳의 그런 게 있니?
- ② 형주에게 새 친구가 생겼다.
- ③ 진수는 김밥이 제일 먹고 싶었다.
- ④ 때로는 회장마저 미답지가 못하다.
- ⑤ 그 친구의 말은 도대체가 틀려먹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교에서 강당이 제일 크다.’에서는 ‘강당이’가 주어이고, ‘학교에서’는 부사어이다. ‘학교에서’의 ‘에서’는 체언에 붙은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희들’은 이인칭 대명사 ‘너희’에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이 결합한 말이다. 문장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 ② 문장에서 ‘준호는’은 ‘준호’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 보조사를 주격 조사 ‘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준호는’은 주어로 볼 수 있다.
- ④ 문장에서 ‘승주만이’는 ‘승주’에 보조사 ‘만’과 주격 조사 ‘이’가 함께 쓰여 주어가 되었다.
- ⑤ 문장에서 ‘주셨습니다’의 주체는 ‘이모’이다.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셨습니다’에 ‘-시-’가 결합해 있으므로 ‘이모’에 대한 존대의 의미를 유지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에서 주어는 '새 친구가'이며, 여기서 '가'는 체언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에서 '이'는 체언 뒤에 결합한 것으로 '어느 곳'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③에서 '이'는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 '먹다'의 목적어 뒤에 결합한 것이다.

④에서 '가'는 연결 어미 '-지' 뒤에 결합한 것이며,

⑤에서 '가'는 부사어 뒤에 결합한 것이다. 이들에서 '이/가'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32.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

라는 문장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심정지 환자가 병실로 옮았다가 되는데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임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라는 문장은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다와 같이 용언 어간에 '-어지다'를 결합하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음

33. '덜렁'은 품사가 부사임

34.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문장 성분의 개수는 변화가 없거나 줄어든다.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음

반대로 사동사는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를 늘림

35. 이 세트 매우 중요하니 풀고 답지까지 정독하고 모르는 거나 이해 안가는 거 있으면 암기하세요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그 구성 요소들로 나누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섬사람'이 갖는 의미 '섬에 사는 사람'은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섬'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구성 요소가 다르면 의미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단어가 된다. 그런데 '집밥'과 '밥집'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 요소가 같아도 구성 요소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가 되기도 한다. 구성 요소가 셋 이상인 단어의 경우 그 의미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큰부리새'는 '큰 부리를 가진 새'이지만, '큰가슴근'은 '큰 가슴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큰 근육'이다. 두 단어가 구성 요소의 배열 양상은 비슷하지만 의미의 양상은 다른 것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가 다르기 때문이다. ㉔ 어떤 단어의 구조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도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부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뜻을 갖는 단어이므로, '시'가 '부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분석한다.

그런데 단어의 구조가 늘 단어의 의미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 + 동사 + 접미사' 형식을 갖는 복합 명사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해 보자. ㉕ '해돋이'는 '해가 돋는'이 '현상'을 수식하는 의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돋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꽃이'의 경우 '연필꽃이', '책꽃이'와 같이 동일한 형식을 갖춘 복합 명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지 [꽃[이]]]'와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오래달리기'처럼 '부사 + 동사 + 접미사' 형식을 갖는 복합 명사의 구조는 어떻게 분석할까? '오래 달리는 일'이라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래[달리]]기]'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㉖ '오래달리기'와 같이 '달리기'가 이미 존재하는 단어인 경우에는 '[오래[달리[기]]]'와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오래달리기'가 '이어달리기' 등과 같이 달리기 경기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과도 부합한다.

㉗ 전체 복합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면 합성어로,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로 그 유형을 분류한다. 그런데 '해돋이', '편지꽃이'와 같은 단어들은 직접 구성 요소 분석으로도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해돋이'에서 [-이]가 접사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돋]은 '해(가) 돋-'의 의미이므로 단어가 아니라 구로 볼 수 있다. 또 '편지꽃이'에서 [편지]가 어근임은 확실하나 [꽃이]는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어근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1. ㉑~㉓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 해당하는 예로 '산짐승'이 '산에 사는 짐승'의 의미를, '들짐승'은 '들에 사는 짐승'의 의미를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㉒에 해당하는 예로 '유리창'과 '창유리'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위아래'와 '아래위'를 들 수 있다.
- ③ ㉓에 따라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할 때, '큰부리새'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부리'와 '새'이고, '큰가슴근'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과 '가슴근'이다.
- ④ ㉔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때, '줄넘기'는 '[[줄넘기]]'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 ⑤ ㉕과 같은 방식에 따라 '오래달리기'의 직접 구성 요소를 '오래'와 '달리기'로 분석해도 이를 합성어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는 '달리기'를 어근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㉘에 따라 볼 때, <보기>의 ㉙, ㉚와 유형 및 구조가 모두 일치하는 단어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는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접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그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를 구분한다. 이를테면 '㉙ 코웃음'은 먼저 두 개의 구성 요소 '코'와 '웃음'으로 분석되는데, 모두 실질적 의미를 갖는 어근들이다. 그리고 '웃음'은 다시 두 개의 구성 요소 '웃-'과 '-음'으로 분석되는데, '웃-'은 어근이고 '-음'은 접사이다. 반면 '㉚ 뜨개질'은 먼저 두 개의 구성 요소 '뜨개'와 '-질'로 분석된다. 그리고 '뜨개'는 다시 두 개의 구성 요소 '뜨-'와 '-개'로 분석되는데, '뜨-'는 어근이고 '-개'는 접사이다.

- | | |
|---------|------|
| ㉙ | ㉚ |
| ① 놀이터 | 민물고기 |
| ② 살얼음 | 오르막길 |
| ③ 싸움꾼 | 헛발질 |
| ④ 갈비찜 | 잠꾸러기 |
| ⑤ 거짓말쟁이 | 돈벌이 |

정답

㉔에 따르면 ‘달리기’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로,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달리기’를 어근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달리기’를 합성어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㉔에 해당하는 예로 ‘산’과 ‘짐승’으로 구성된 단어와 ‘들’과 ‘짐승’으로 구성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㉔에 해당하는 예로 구성 요소가 ‘유리’와 ‘창’으로 같으나 그 배열이 ‘유리창’과 ‘창유리’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㉔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구성 요소가 ‘위’와 ‘아래’로 같은 경우 그 배열이 ‘위아래’이든 ‘아래위’이든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큰부리새’는 ‘큰 부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큰부리’와 ‘새’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큰가슴근’은 ‘가슴에 있는 큰 근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큰’과 ‘가슴근’으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④ ㉔과 같이 단어를 분석할 때, ‘줄넘기’는 ‘줄을 넘는’이 ‘행위’를 수식하는 의미 구조를 가지므로 [[줄넘기]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정답

<보기>의 ‘코웃음’은 ‘코’, ‘웃-’, ‘-음’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코’와 ‘웃음’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뜨개질’은 ‘뜨-’, ‘-개’, ‘-질’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뜨개’와 ‘-질’이며 ‘-질’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갈비찜’은 ‘갈비’, ‘찌-’, ‘-ㅁ’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갈비’와 ‘찜’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잠꾸러기’는 ‘자-’, ‘-ㅁ’, ‘-꾸러기’의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인데, 직접 구성 성분이 ‘잠’과 ‘-꾸러기’이며 ‘-꾸러기’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오답

① ‘놀이터’는 직접 구성 성분이 ‘놀이’와 ‘터’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민물고기’는 직접 구성 성분이 ‘민물’과 ‘고기’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② ‘살얼음’은 직접 구성 성분이 ‘살-’과 ‘얼음’이며, ‘살-’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오르막길’은 직접 구성 성분이 ‘오르막’과 ‘길’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③ ‘싸움꾼’은 직접 구성 성분이 ‘싸움’과 ‘-꾼’이며, ‘-꾼’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헛발질’은 직접 구성 성분이 ‘헛발’과 ‘-질’이며 ‘-질’이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⑤ ‘거짓말쟁이’는 직접 구성 성분이 ‘거짓말’과 ‘-쟁이’이며, ‘-쟁이’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돈벌이’는 직접 구성 성분이 ‘돈’과 ‘벌이’이며, 둘 다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36. ‘곧이어’에서 ‘이어’는 ‘잇다’의 활용형으로 실질 형태소임
‘뜻이야’에서 ‘이야’는 형식 형태소임

37. 이런 자료 활용형 문항의 경우 독서에서 case 분류하듯이 케이스 분류한 후에 선지에 적용하는 게 핵심

<보기>는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이중 모음의 제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다면 중세 국어에서는 ‘니, 히, 기, 케’가 이중 모음 이었던 것인가요?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 + 니 니히 기 기케 피 케 케는也. -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
(한 글자로 된 중성이 ‘니’와 어울린 것은 10개로, ‘니 니히 기 기케 피 케 케’이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니 + | → 케’와 같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중성해의 기술을 통해 ‘케’ 등이 단모음과 반모음 ‘j’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케, 히, 니, 기’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중세 국어 조사의 형태를 통해서도 이들 모음이 이중모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대 국어의 ‘이다’에 대응하는 중세 국어의 조사는 자음뒤에서는 ‘이라’, ‘니’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니라’, ‘니’나 반모음 ‘j’ 뒤에서는 ‘∅라’의 형태로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불휘라(뿌리이다)’를 통해 ‘기’가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스시예(사이에)’, ‘뒤예서(뒤에서)’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 ‘니’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 ‘에서’가 ‘예’, ‘예서’의 형태로 결합했습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니’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면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ㄹ리음 드외요미(가림이 됨)’의 ‘가리음’과 ‘드외요미’를 살펴보면 ‘가리-’와 ‘드외-’에 결합한 명사형 어미 ‘-음’에 반모음 ‘j’ 첨가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드외-’의 ‘니’가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학생: 그러면 ㉠을(를) 통해 ‘㉡’가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 ㉠ | ㉡ |
|--|---|
| ① ‘이 시내에 사는(이 시내에 사는)’의 ‘시내에’ | 히 |
| ② ‘저고맛 時節 디내음돌 혼(조그만 시절을 지냄은)’의 ‘디내음’ | 히 |
| ③ ‘형테 사괴요물(형제와 사귀음)’의 ‘사괴음’ | 니 |
| ④ ‘金剛은 쇠에서 난(금강은 쇠에서 난)’의 ‘쇠에서’ | 니 |
| ⑤ ‘이 상해 사롬미 효되라(이 보통 사람의 효도이다)’의 ‘효되라’ | 니 |

정답

‘이 상해 사름미 효되라(이 보통 사람의 효도이다)’의 ‘효되라’는 ‘효도 + 라’로 분석되는데, 체언의 끝소리가 ‘ㄹ’여서 ‘ㄹ’이 결합한 사례가 아니다. 따라서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이 시내에 사느(이 시내에 사는)’의 ‘시내에’는 ‘시내 + 예’로, 부사격 조사로 ‘예’가 결합한 것을 통해 ‘시내’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② ‘저고맷 時節 디내욘들흔(조그만 시절을 지냄은)’의 ‘디내욘’은 반모음 ‘j’ 첨가가 일어나 ‘디내욘’이 아니라 ‘디내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디내-’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③ ‘형데 사괴요물(형제와 사귀음)’의 ‘사괴욘’은 반모음 ‘j’ 첨가가 일어나 ‘사괴욘’이 아니라 ‘사괴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사괴-’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④ ‘金剛은 쇠에서 난(금강은 쇠에서 난)’의 ‘쇠에서’는 ‘쇠 + 예서’로, 부사격 조사로 ‘예서’가 결합한 것을 통해 ‘쇠’의 ‘ㄹ’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38. ‘그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기 전에’라는 문장에서

밑줄 친 문장은 명사절로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에 해당함

39.

‘좋겠구나’에는 문장을 끝맺어 주는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해 있다.

‘날이 개니’에서 ‘개니’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 ‘-니’가 결합해 있다.

종결 어미 ‘-란다(동백꽃이란다)’ 종결 어미 ‘-지(늦게 오겠지)’
주현이가 사회를 보고 민지는 기록을 하여라라는 문장에는 연결 어미 ‘-고’ 종결 어미 ‘-여라(하여라)’

연결 어미 ‘-는데(출발했는데)’와 종결 어미 ‘-을까(도착했을까)’

40. ‘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거나,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뒤섞다’는 접두사 ‘뒤-’가 동사의 어근 ‘섞-’에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이때 접두사 ‘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41. ‘올벼’에서 ‘올’은 접사임

42. 힘껏에서 ‘껏’은 접사임 그래서 명사 힘을 힘껏이라는 부사로 바꿈

43. 이거 지문형 문법에 나온건데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설불축	설소축	설축
ㅣ	ㅡ	˘
	ㅍ	ㅑ
	ㅓ	ㅕ

〈표〉 혀의 상태에 따른 단모음 분류

설축: 혀가 움츠러드는 특징

설소축: 혀가 조금만 움츠러드는 특징

설불축: 혀가 움츠러들지 않는 특징

44. 형이 축구를 해서 웃는다는 연결어미 ‘-아서’가 활용된 문장임. 하다 + 아서 가 해서가 된거임

형이 축구를 하니까 웃는다라는 문장에서 ‘니까’는 ‘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임

45. ‘되묻는’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 + 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임 즉 ‘되’는 접사에 해당함

‘선잠’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 + 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임 즉 ‘선’은 접사임

‘헛웃음’은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 + 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임 즉 ‘헛’은 접사

놀이꾼에서 ‘-꾼’은 접사임

46.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항이라고 생각 수능 때 이런 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좀 해보면 좋을 거 같음

다음은 국어사전의 수정 전후의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ㄱ~ㅁ의 수정 사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제어	수정 전	수정 후
ㄱ	꿈-같다	「1」 세월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 「2」【…이】 덧없고 허무하다.	「1」 세월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 「2」【…이】 덧없고 허무하다. 「3」 매우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
ㄴ	작전 ⁰¹	「1」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함. 「2」 『군사』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짜는 일.	「1」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하거나 실행함. 또는 그런 조치나 방법. 「2」 『군사』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강구하거나 실행함.
ㄷ	막- ⁰⁷	「1」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1」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ㄹ	오싹-하다	「동사」【…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다.	[I] 「동사」【…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다. [II] 「형용사」【…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
ㅁ	스카프	주로 여성이 방한용·장식용 따위로 사용하는 얇은 천. 목에 감거나 머리에 쓰기도 하고, 옷깃 언저리에 약간 내놓거나 허리에 매기도 한다.	방한용·장식용 따위로 사용하는 얇은 천. 목에 감거나 머리에 쓰기도 하고, 옷깃 언저리에 약간 내놓거나 허리에 매기도 한다.

① ㄱ: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② ㄴ: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와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모두 수정하

였다.

- ③ ㄷ: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중 하나를 삭제하였다.
- ④ ㄹ: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문형 정보를 수정하고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⑤ ㅁ: 뜻풀이에서 성별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였다.

정답

‘오싹-하다’는 수정 후에 ‘[Ⅱ] 「형용사」 【…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로 쓰이는 문형 정보와 뜻풀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오답

- ①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ㄱ3」 매우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②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 강구함.’에서 ‘~강구하거나 실행함. 또는 그런 조치나 방법.’으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 짜는 일.’에서 ‘~ 강구하거나 실행함.’으로 수정하였다.
- ③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중 ‘ㄱ3」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삭제하였다.
- ⑤ 뜻풀이에서 성별과 관련된 부분인 ‘주로 여성이’를 삭제하였다.

47. 직선거리로 200km이상을 이동한 셈이다에서

‘셈’은 의존 명사로, ‘-는 셈이다’의 구성은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48. 쫄깃쫄깃은 부사인데 쫄깃쫄깃하다는 형용사임

49. 문제 풀어보세요

㉠아, 그 말씀은 AI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상상력 등을 표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즉 창작 활동을 돕는 긍정적인 쓰임을 가진 도구로 보는 것이시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AI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은 방송이 끝난 후 프로그램 누리집 게시판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디지털이 바꾼 세상’ 세 번째 시간에는 공학 칼럼니스트 ◇◇◇ 님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① ㉠은 인용절을 사용하여 ‘박사’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박사의 말을 높임으로써 ‘박사’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③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AI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을 업로드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④ ㉢은 보조 용언 ‘보다’를 사용하여 다음 주 방송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공학 칼럼니스트 ◇◇◇ 님’을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정답

‘것이지군요’에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것을 통해, ‘그 말씀’, 즉 ‘박사’가 한 말을 높임으로써 ‘박사’에 대한 간접 높임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 ① ㉠에는 인용절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업로드됩니다’에 사용된 피동 접사 ‘-되다’는 그림을 업로드하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된 피동문을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④ ‘나누어 봅니다’에 사용된 보조 용언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로, 지속적인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⑤ ‘봅니다’에 사용된 종결 어미 ‘-습니다’는 하십시오체로 청취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담화 맥락상 ‘공학 칼럼니스트◇◇◇ 님’은 청자가 아니므로 ‘-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이는 대상이 아니다.

50. 문제 풀어보세요(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기)

체력 인증 센터에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연령별 무료 체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은 일반 성인과 건강 체력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현재 체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 드리고** 있지요. 올해 67세의 □□□ 씨도 국가 공인 체력 인증에 ㉣**도전해 보고자** 체력 인증 센터에서 검사를 ㉤**받아 보고 싶다면**

- ① ㉠: 보조 동사 ‘있다’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 형용사 ‘않다’를 활용하여 ‘건강 체력 기준’의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보조 동사 ‘드리다’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높이고 있다.
- ④ ㉣: 보조 동사 ‘보다’를 활용하여 ‘□□□ 씨’의 과거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형용사 ‘싶다’를 활용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에서 ‘보다’는 ‘먹어 보다.’, ‘입어 보다.’에서처럼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뜻하는 보조 동사이다.

오답

- ① ‘있다’가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 ② ‘않다’가 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 ③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가 보조 동사로 쓰여, 객체인 ‘어르신들’을 높이고 있다.
- ⑤ ‘싶다’는 동사 뒤에서 ‘-고 싶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51. 문제 풀어보세요(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기)

특별실은 작년에 썼던 일반 교실에 비하면 좀 더 넓긴 ㉠하지만

전시할 작품 수에 비해 공간이 좁을 것 ㉢같은데

이걸 잘 ㉡활용하면

그림 전시회라고 하면 보통 미술관 벽면의 일정한 높이에 작품이 나란히 ㉣걸리고 관람자가 그 앞을 ㉤이동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

- ① ㉠: 특별실이 그림 전시 공간으로 적절한 이유를 부각하여 나타내려고 ‘-지만’을 활용하였다.
- ② ㉢: 전시할 공간이 좁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려고 ‘-은데’를 활용하였다.
- ③ ㉡: 몰입형 전시를 시도하는 것이 현재 여건상 어려움을 나타내려고 ‘-면’을 활용하였다.
- ④ ㉣: 관람자가 미술관 벽면의 작품을 보는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내려고 ‘-고’를 활용하였다.
- ⑤ ㉤: 관람자가 이동하는 것과 감상하는 것이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려고 ‘-면서’를 활용하였다.

정답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에서는 ‘-면서’를 활용해 관람자가 이동하는 것과 감상하는 것이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 ①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인다.
- ② ‘-은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등에 쓰인다.
- ③ ‘-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등에 쓰인다.
- ④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을 때,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낼 때, 앞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등에 쓰인다.

실전 학습 정리

1. ‘피-’가 ‘-어’와 결합하면 ‘피어’, ‘펴’의 두 형태가 가능하다. ‘펴’는 [펴:]로 발음되는데, 이는 두 개의 단모음 ‘ㅣ + ㅏ’가 ‘반모음 ‘j’ + ㅏ’의 구조로 된 이중 모음 ‘ㅑ’로 바뀐 것이 반영된 발음이다.

2. 聖人神力(성인신력)을 어느 다 슬브리 [성인신력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라는 문장에서 ‘어느’, ‘다’는 모두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것임

3. 이제는 그냥 이 지문형 문법에 내용 정도는 암기해야 합니다. 제발요 위에도 적어뒀던 내용이지만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제발 암기하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고 하는데, 안긴절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절이 관형사화되어 관형어로 쓰이면 그 절을 관형사절이라고 한다. 관형사절은 일반적으로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동격 관형사절은 ‘동격절’이라고도 하는데, 동격절은 절의 의미가 그것이 꾸며 주는 명사의 내용과 같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때 동격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는 ‘소문, 보도, 주장, 사건, 기억, 가능성’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선수가 곧 귀국한다는 소문이 돈다.’에서 ‘그 선수가 곧 귀국한다’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소문’과 내용상 같으므로, ‘그 선수가 곧 귀국한다’는 동격절이다. 동격절은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한 문장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있는 동격절이다. 앞서 예를 든 문장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앞에는 ‘그 선수가 곧 귀국한다’와 같이 완전한 문장 형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 **관형사형 어미 앞에 불완전한 절 형식이 있는 동격절이다.** 예를 들어 ‘나는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에서 ‘그를 만난’은 그것이 수식하는 ‘기억’과 내용상 같으므로 동격절이다. 그런데 이 동격절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앞의 ‘그를 만나-’는 종결어미를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절 형식이다.

관계절이라고도 하는 관계 관형사절은, 공통의 명사(구)를 매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그가 만든 악기는 매우 유명하다.’에서, 관형사절 ‘그가 만든’과 그 절을 안고 있는 ‘악기는 매우 유명하다’가 공통의 명사인 ‘악기’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관계절 속의 문장 성분 중 하나가 그 관계절이 꾸며 주는 명사(구)와 동일하고, 그 동일한 명사(구)는 생략되는 것이 관계절의 특징이다. 앞의 관계절 ‘그가 만든’에는 ‘만들다’의 목적어로 쓰여야 할 ‘악기’가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관계절 속에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에 따라, 그 생략되어 있는 명사(구)가 관계절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주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5. ㉠을 안고 있는 문장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언니는 내일 저녁에 도착한다고 나에게 말했다.
- ② 호진이는 이 작품을 쓴 작가를 우연히 만났었다.
- ③ 나와 동생은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 ④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 ⑤ 나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해 보았다.

6. ㉠~㉢ 중 <보기>의 밑줄 친 관계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보기>

부드럽고 파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벚꽃이 피어 있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근처 수변 공원에 자리를 잡고, 집에서 준비해 온 점심도 나눠 먹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에서 관형사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의 의미는 이 절이수식하는 명사 ‘경험’과 내용상 같다. 그러므로 이 관형사절은 동격절이다. 동격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에서, 관형사형어미 ‘-는’ 앞에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과 같이 불안전한절 형식이 있다.

오답

①에는 ‘내일 저녁에 도착한다고’가 인용절로 안겨 있다

②에는 ‘이 작품을 쓴’이 관계절로 안겨 있다.

③에는 부사절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이 안겨 있다.

④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용상 같으므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은 동격절이다. 이 동격절에서 관형사형어미 ‘-는’ 앞은 완전한 문장 형식이다.

정답

<보기>의 관계절 '부드럽고 따스한'에는 주어로 해석할 수 있는 '바람'이(바람이), 관계절 '벚꽃이 피어 있는'에는 부사어로 해석할 수 있는 '강변'이(강변에), 관계절 '집에서 준비해 온'에는 목적어로 해석할 수 있는 '점심'이(점심을) 각각 생략되어 있다.

4. 올해 가장 썩한 지문입니다. 음운 변동의 순서!를 묻는 문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옷 + 과'를 발음할 때는 먼저 '온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온파]로 발음된다. 그리고 '놓 - + -고'를 발음할 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코]로 발음된다. 그런데 만약 '놓 - + -고'에 거센소리되기 대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면 '놓 - + -고 → 놓고 → [*논꼬]'라는 부정확한 발음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여러 음운 변동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의 실제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일관된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설정할 때는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적용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옷 + 과 → 온과 → [온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소리되기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된소리되기는 음절 끝 'ㄱ, ㄷ, ㅂ' 뒤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므로 '옷 + 과'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된소리되기는 적용될 수 없다. 평과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는 음절 끝 'ㄱ, ㄷ, ㅂ'에만 적용되므로, '옷 + 만 → 온만 → [온만]'과 같은 사례에서도 자동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적용된다. 한편 '만지- + -어 → 만져 → [만져]'를 살펴보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현상인 반모음화와 경구개음 'ㅈ, ㅉ, ㅊ' 뒤에 반모음 'j'가 올 때 반모음 'j'가 탈락하는 현상인 'j' 탈락이 차례로 적용되고 있다. 국어에서는 'ㅈ, ㅉ, ㅊ'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ㄱ, ㄴ' 등 'j'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j' 탈락은 반드시 반모음화가 일어난 후에만 적용된다.

반면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해 주지 않으면 표면형, 즉 우리가 실제로 듣게 되는 발음형이 잘못 나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알- + -는'처럼 'ㄹ'과 'ㄴ'이 결합하는 경우 유음 탈락이 적용될 수도 있고 유음화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음화가 먼저 적용되면 [*알른]과 같이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므로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즉 '알- + -는 → [아 : 는]'은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되며 유음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읽- + -고'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될 수도 있고 된소리되기가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되면 [*일고]와 같은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게 된다. 용언 활용형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읽- + -고 → 읽꼬 → [일꼬]’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 + -는 → [사 : 는]’는 유음 탈락을 먼저 적용하며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② ‘넓- + -고 → [널꼬]’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③ ‘짓- + -는 → [진 : 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④ ‘닭- + -고 → [닥꼬]’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⑤ ‘뿔- + -고 → [뿔꼬]’는 거센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하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 a 갈- + -는 → [감는]
- b 맑- + -게 → [말게]
- c 빠지- + -어 → [빠 : 저]
- d 짧- + -다 → [잘따]
- e 찾- + -고 → [찰꼬]

- ① a, b, c
- ② a, c, e
- ③ a, d, e
- ④ b, c, d
- ⑤ b, d, e

정답

지문의 1문단에서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는 일관된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으며, ‘넓고’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면 [널꼬]와 같은 표면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넓- + -고 → [널꼬]’는 ‘넓- + -고 → 넓꼬 → [널꼬]’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 ① ‘살- + -는 → [사:는]’은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되어 [사:는]으로 발음됨에 따라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면형이다.
- ③ ‘짓- + -는 → [진: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짓-’의 ‘ㅅ’이 ‘ㄷ’으로 바뀐 다음 ‘는’의 ‘ㄴ’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④ ‘닭고 → [닥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닭-’의 ‘ㄱ’이 ‘ㄱ’으로 바뀐 다음 ‘ㄱ’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⑤ ‘똥- + -고 → [똥꼬]’는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적용되어 [똥꼬]로 발음됨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표면형이다.

정답

- ㉠ ‘값- + -는 → [감는]’은 ‘값- + -는 → 값는 → [감는]’의 과정을 거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값’의 ‘ㅍ’이 ‘ㅃ’으로 바뀌지 않으면 비음화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 ‘빠지- + -어 → [빠:저]’는 ‘빠지- + -어 → 빠져 → [빠:저]’의 과정을 거치며, 반모음화가 먼저 적용되어 ‘ㅈ’ 뒤에 ‘j’가 이어지지 않으면 반모음 ‘j’ 탈락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 ㉢ ‘찾- + -고 → [찬꼬]’는 ‘찾- + -고 → 찬고 → [찬꼬]’의 과정을 거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찾’의 ‘ㅈ’이 ‘ㄷ’으로 바뀌지 않으면 된소리되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 ㉣ ‘맡- + -게 → [말께]’는 ‘맡- + -게 → 맡께 → [말께]’의 과정을 거치며,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이 두 규칙은 ‘맡- + -게’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도록 된소리되기를 자음군단순화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짹- + -다 → [짹따]’는 ‘짹- + -다 → 짹따 → [짹따]’의 과정을 거치며,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이 두 규칙은 ‘짹- + -다’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도록 된소리되기를 자음군단순화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분석 모르는 거 있으면 암기

‘믿었었지만’은 ‘믿- + -었었- + -지마는’으로 분석된다. ‘-었었-’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지마는’은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이다.

‘예측하길’은 ‘예측하 - + -기 + 르’로 분석되는데, 명사절‘... 예측하기’에 목적격 조사 ‘르’이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고, 전성 어미만 사용되었다. ‘-기’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예상하셨나요’는 ‘예상하 - + -시- + -었- + -나 + 요’로 분석되는데, 맨 끝의 ‘요’는 보조사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시-’는 주체 높임을, ‘-었-’은 시제를 나타내고, ‘-나’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르렀습니다’는 ‘이르- + -었- + -습니다’로 분석되는데, ‘이르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이르렀습니다’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었-’은 시제를, ‘-습니다’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고 있다.

‘냈을’은 ‘내- + -었- + -을’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선어말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었-’은 시제를 나타내고, ‘-을’은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6.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 문장 구조 푼다고 생각하고 분석해보세요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곳의 기후는 벼농사를 짓기에 딱 유리하다.
- ㉡ 바로 그 결정이 깔끔히 된 일을 그르쳤다.
- ㉢ 부지런한 그녀는 가구에 윤기가 흐르도록 거실을 청소했다.
- ㉣ 그는 자기가 원래 소속된 집단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② ㉡에는 주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안긴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과 ㉣에는 모두, 보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정답

㉠에 있는 안긴절인 명사절 '벼농사를 짓기'에는 '사람들이' 따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 있는 안긴절 중 관형사절 '자기가 원래 소속된'에는 '그 집단에' 따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

㉢ ㉠의 주어는 '바로 그 결정이'인데, 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서는 '부지런한'이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 ㉠에 있는 안긴절인 '벼농사를 짓기'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의 부사어인 '벼농사를 짓기에'와 '푹'은 안긴절 속에 있는 부사어가 아니다. ㉡에 있는 안긴절 중 '가구에 윤기가 흐르도록' 속에는 부사어 '가구에'가 있다.

㉤ ㉠에 있는 안긴절인 '깔끔히 된'의 서술어인 '된'은 보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에 보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깔끔히 된'의 '된'은 '일이 잘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이때는 보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에 있는 안긴절인 '부지런한'과 '가구에 윤기가 흐르도록' 역시 둘 다 보어가 생략된 안긴절이라 볼 수 없다.

㉥ ㉠에 있는 관형사절 중 '깔끔히 된'의 서술어 '된'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깔끔히 된 일을 그르친'에는 목적어 '깔끔히 된 일을'이 드러나 있다. ㉡에 있는 관형사절 '자기가 원래 소속된'의 서술어 '소속된'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7.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서는 전국 70여 곳의 실시간 소음 측정치를 1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는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해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환경부'임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선지임

㉡ ㉠는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실시간 소음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시험 삼아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틀린 선지임

그 이유는

㉠는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실시간 소음 측정치'라는 정보제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은 '보다'이다.